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충현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용홍 편집: 양재웅

나의 감사는 십자가!

이번 주 금요일(11월 18일) 저녁 7시 추수감사 찬양축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가족연합예배 2·3부)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일 년 동안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낸 것을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한 것을 감사하고, 사업이 행통한 것을 감사합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아프고, 모든 일들이 짝 막혀 있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됩니까? 사실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롬 1:21).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배부신 은총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골 2:7).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에 추수감사 찬양축제가 열립니다. 온 성도들이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가지고 연습한 찬양을 드리는, 그야말로 감사의 축제입니다. 그동안 금요찬양집회를 중심으로 연습하신 성도님들은 더욱 잘 준비해 주시고, 그 외 성도님들도 집안에 있는 악기를 하나씩 꼭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많은 연습을 하지 못했고, 온 성도가 오케스트라가 되어 연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탁월한 노래와 연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삼상 16:7). 또한 이 날은 각 부서와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의 시간도 있습니다.

추수감사 찬양축제를 통하여 2011년 추수감사주일은 더욱 은혜로 풍성할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성껏 감사의 예물도 준비하여 온전한 감사 주일이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 2·3부예배는 가족연합예배로 드리는 온 가족의 참석을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이스라엘의 사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 자체가 가정생활을 통한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왔다. 여기에서부터 경험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에 적용하였다. 이는 곧 인간 편에서 이해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부모, 자식 또 가정생활을 통한 인간의 경험은 곧 하나님과의 경험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다(창 1:27~28; 엡 3:14~15). 유대인들은 이름에 또는 이름 안에 'Ab(아빠)'를 많이 사용한다. 요압(Abiah), 아비야(Abijah), 엘리압(Eliab) 등이다. 이는 곧 아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뜻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름의 한 부분인 'Ab', 즉 신이 주신 이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는 민족적 종족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 자체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을 향한 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태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를 향한 태도는 관심, 사랑, 동정, 인내가 있으며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이 있다(신 1:30~31, 8:4~5; 시 103:13).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다(삼 3:12).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다(삼하 7:14).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과 배려가 인간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악용하고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게 되고 또 책망하시게 될 때에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은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였다(막 1:6).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가로챌며 하나님을 멸시하였다(신 14:1~2; 사 1:2).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계를 주시며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렘 3:19~20; 호 1:10~11).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러한 내용들은 부모의 권위와 관련된 율법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부모의 권위는 이스라엘 안에서 보통 이상으로 엄격하다. 언약의 민족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유지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권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출 20:12, 21:15, 17; 신 27:16; 잠 30:17).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가정은 가장, 법적인 문제, 교육, 영적, 심지어 군사적인 면에서 한 공동체의 머리가 되었다. 이 공동체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 또 그에게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 6장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보호하시는 장면에서 긍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으며(삿 6:30~31), 부정적인 면은 욕기 29~30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욥 29:5, 21, 30:1, 10).

아훼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할은 감정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다. 오히려 한 쪽으로는 권위요,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이다. 관계는 신뢰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범위 안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친밀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지원하는 순종과 완전한 신뢰를 체험하면서 또 이것들을 표현하여 나타내 주셨다(요 17:4, 21, 23, 26). 아멘.

THANKFUL ATTITUDE

***(1) Paul, Sila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and peace to you.***

(2) We always thank God for all of you, mentioning you in our prayers.

***(3) We continually remember before our God and Father your work produced by faith,
your labor prompted by love, and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1 Thessalonians 1:1~3)***

In today's Bible verses Paul clearly gives us an example of a thankful attitude. His many epistles in the Bible use and teach the concept of thankfulness. As Christians, we need to appreciate God's grace and love that comes to us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by giving thanks. Too many 21st century believers are walking around this earth grumbling, complaining, and without real gratitude concerning their high position. Let's uncover Paul's understanding and teaching of true thankfulness.

Paul instructed the Thessalonian church,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1 Thes. 5:18). Paul understood that his thankful attitude was not dependent upon his personal environment or condition. He appreciated the Lord Jesus in all the situations that he experienced, even those in danger of death,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brothers, about the hardships we suffered in the province of Asia. We were under great pressure, far beyond our ability to endure, so that we despaired even of life. Indeed, in our hearts we felt the sentence of death. But this happened that we might not rely on ourselves but on God, who raises the dead. He has delivered us from such a deadly peril, and he will deliver us. On him we have set our hope that he will continue to deliver us, as you help us by your prayers. Then many will give thanks on our behalf for the gracious favor granted us in answer to the prayers of many"(2 Cor. 1:8~11). During His last supper before taking the cross, Jesus took the bread and cup knowing His death was imminent and gave thanks,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Mt. 26:26~28). Jesus gave thanks for everything, whether eating, preaching, or even dying.

Thanksgiving is a duty that every Christian must practice, "We always thank God for all of you, mentioning you in our prayers. We continually remember before our God and Father your work produced by faith, your labor prompted by love, and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1 Thes 1:2~3). Paul gave thanks for the Thessalonians' faith because he understood that it was his responsibility to always pray for God's chosen people. He explained, "But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loved by the Lord, because from the beginning God chose you to be saved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and through belief

in the truth"(2 Thes. 2:13). As Christians we must realize that it is our duty to give thanks to the Lord because God has given us abundant blessings. When we continually practice being thankful our hearts reflect a thankful attitude. Under all circumstances, not just the good things that happen to us but also the difficult ones, we must show our appreciation to the Lord. If we don't have an appreciative heart then our walk is not on the narrow pathway, but will lead us down another road, "For although they knew God, they neither glorified him as God nor gave thanks to him, but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Rom. 1:21).

We have to extend our thanksgiving beyond ourselves. Today's Christians are very good at giving thanks for their blessings, but neglect others. Paul exclaimed, "God, whom I serve with my whole heart in preaching the gospel of his Son, is my witness how constantly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at all times"(Rom. 1:9~10). Paul told the Corinthians, "I always thank God for you because of his grace given you in Christ Jesus"(1 Cor. 1:4). He also told the Colossians, "Devote yourselves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Col. 4:2). When you think of Jesus do you realize how much you have to be thankful for? Thanksgiving is not just about our prayers to God, it's something you have to wake-up with and feel and then proclaim. Regardless of anything, whether your child is sick, you've lost a loved one, your heart is broken, no matter the situation every Christian is a part of the body of Jesus Christ. Do you truly understand what a privilege it is to be a child of God? How can someone like that ever stop giving thanks? Every single Christian is an important part of Jesus Christ and therefore has reason to praise the Lord! Paul told the Ephesian church, "For this reason, ever since I heard about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and your love for all the saints, I have not stopped giving thanks for you, remembering you in my prayers"(Eph. 1:15~16). God chose us and sanctified us in His Holy Spirit. He made us the truth, and He continues to minister to us in our hearts through His word. Our hearts are enlightened so that we may know the hope of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and His almighty power.

My dear friend, I want you to have the work of faith, labor of love, and steadfastness of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that leads to salvation. As you walk along the narrow pathway that God has laid out, you will experience difficulties and suffering, but I want you to experience everything with a thankful attitude. Let's encourage each other, pray for each other, and go the way of faith. Amen. 

감사의 태도

- ⁽¹⁾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²⁾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 ⁽³⁾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1~3)



김성관 목사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의 태도에 대한 명료한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많은 서신서에서 바울은 감사의 개념을 사용하여 가르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21세기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에 관해 온전히 감사하지 않은 채 푸념과 불평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참된 감사에 대해 바울이 이해하고 가르쳤던 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바울은 자신의 감사의 태도가 개인적인 환경이나 상황과는 무관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심지어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주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1:8~11).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셨음에도 떡과 잔을 취하며 감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6~28). 예수님은 모든 상황, 즉 밥을 먹거나 설교할 때, 심지어 죽음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행해야 하는 본분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살전 1:2~3).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믿음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 항상 기도할 책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살후 2:13).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주님

께 감사함이 우리 본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도 감사하는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 침침한 다른 길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1).

감사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넘어 남들에게도 감사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축복에는 감사를 참 잘 드리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소홀히 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이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서 쉬고 너희를 말하며”(롬 1:9~10)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4). 또한 골로새인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십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 몸으로 느끼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아프든,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든, 마음에 상처를 입었든 관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됨의 특권을 진심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엡 1:15~16).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거하시므로 우리를 계속 돌보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유산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는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의 태도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아멘. ■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박결음

우리는 많은 것을 사물을 통해, 주변을 통해 듣고, 말하고, 행한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관계 속에서 때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망치고 숨이 막힌곤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매다 보면 어느 새 주님은 멀리 계시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람'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햇빛과 공기와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의 욕망들로 가득 채운 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무엇을 헤아리고 계산하며 삼기보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총만하신 것을 배우며 오늘도 살기 원한다. 그래서 그 오늘이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발걸음기기를 원한다. 정말 나는 주님과 은총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의 수술을 통해 죽음을 가까이 맛보았고 그 적막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서 귀를 기울인다. 청지기훈련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겨본다.

박순옥(집사, 7교구)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모태신앙으로 자라 38년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복음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 총현교회에 등록한 지 7년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기와 명예의 자리를 좋아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사물의 기쁨들과 부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청지기훈련 말씀이 내려졌다. 이번 청지기훈련 말씀을 들으며 가장 가슴 깊숙이 찔렸던 말씀은 "너희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사실 내 순간마다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은 내게 늘 요구하셨다. 복을 전하기를, 예수님이 진짜라고 전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나는 영적 용기가 없었다. '나중에 전할게요. 아직은 때가 아닌 거 같아요.' 영혼 구원보다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놓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위식의 옷을 벗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였기에 그 말씀은 정말 무섭기까지 했다. 예수님의 피 값을 계산하는 어리석은 자. 그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 통곡하는 자가 되지 말길 간절히 원한다. 감사한 것은 복음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더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다. '남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총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총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정말 감사한 말씀이다. 이 총만한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오직 복음만이 참 지혜와 영혼의 양식이며 이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한다. 호세아 말씀과 같이 힘써 여호와를 알지! 영혼의 양식을 가득가득 채우자! 말씀에 순종하자!

함은주(집사, 21교구)

주 예수님만이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기대 만, 설령 만으로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받은 책자에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는 주제 말씀이 써 있었다. 제목부터 하나님은 죄인 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다. 주제 말씀 가운데 비추던 내 모습을 생각하니 청지기훈련 때 주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더 갈급한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 안에서 인간들이 변성하며 살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던 청지기훈련을 사랑하시는 가족과 구역 식구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역 식구들이 맘 흘리며 달려 나와 참석하고, 주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주님 만남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청지기훈련에 임했습니다. 주제 말씀으로 주와 같은 생명의 말씀과 찬양이 흘러 퍼질 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생명을 강같이 흘러 넘치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주님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안에 살 때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진희재(집사, 20교구)

격곡 문제는 나왔다!

내가 지극보다 더 어릴 때에는 청지기훈련은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충만한 베품과 같다고 비유한 적이 있었다. 맨 몸으로 가서 그것도 공짜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잔치라는 마음에 행복했다. 그러나 이젠 내가 말씀을 좀 안다 싶어 배부르다 느끼는 지 더 이상 공간에서 올라 퍼지는 말씀이란 음식에 구미가 떨어지지 않았다. 미처 못 먹은 집밥의 비슷한 메뉴가 너무 짜증나서 좀 새롭고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먹고 싶어 하는 나의 입맛처럼, 이번에도 습관처럼 교회에 가서 떡국 먹고 연합찬양대에서 연습하고 등단했다. 갈급함이 분명 있었지만 채우고 싶은 마음과 기대는 없었다. 그러나 첫 찬양은 내 상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진리는 단순해졌고, 결론은 분명해졌다. 결국 문제는 나왔던 것이다. 나는 예수께서 말한 황금율의 공식대로 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받고자 하는 만큼만 받았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지고 '주님, 내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이다. 성령님과 한계를 정하는 나는 내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았다. 결국 나의 무더진 생각과 마음이 문제였다. 인제나 진수성찬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지는데 나는 집다한 군것질로 옛날에 불려진 잔치 영약이 있는, 영혼에 필수적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서 깨닫게 하신다. 나의 굶주린 영혼을 거짓말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진짜 복음의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할 것은 오직 회개와 순종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청지기훈련의 말씀, 내에게는 다시 태어난 생일 같은 순간이었다.

최용현(대학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복음을 보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복음을 듣게 하소서 봉쇄된 내 입 여시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계산하는 믿음들을 버리고

저는 핸드벨 연주대원으로서 정기기후련에 참석하였습니다. 핸드벨석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니 예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느새 1층과 2층이 꽉 차게 되는 것을 보니 웬지 제 마음이 꽉 찬 기분이었습니다. 찬양대와 함께 어우러져 찬양을 부르니 흥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곳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성도들이 남녀노소 함께 찬양을 하니 더욱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합찬양대가 <주여 내가 여기 있소나니>를 찬양할 때 모두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느껴졌고, 찬양의 가사와 가락이 합쳐지면서 은혜를 크게 받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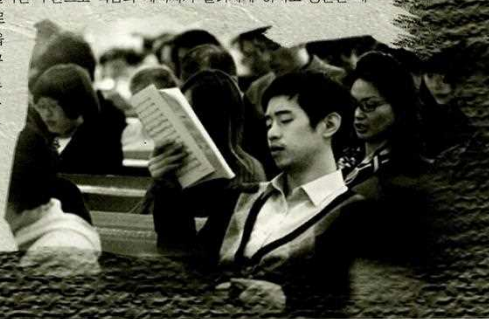
특히,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로워서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졸고 있을지도 모르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며, 특히 목사님께서 처방전을 건지 하지만 약은 먹지 않는 자의 비유를 드실 때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그런 자는 아니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세상 것에 맞추어 믿음을 계산했던 저를 진심으로 부우치게 되었습니다.

조아라(교동부)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잠든 영혼을 깨워 주심에 감사하며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듣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였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결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내려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내리진에도 들리지 않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사 아담의 후손이라 고백하며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했다.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간구, '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나의 평안과 안식을 보장해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오니 영혼의 양식, 곧 믿음의 결국인 구원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믿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천국의 말씀 잔치였다.

김동희
(인수집사, 11교구)



를 원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했다. 죄를 짓고 타락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은 회복된 영혼을 찾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아무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죄인인 강도. 그 강도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아! 주님을 믿는다고 자랑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항상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실재가 되지 못하였구나.' 매번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여전히 그대로인 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 내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골 2:2~3).

변함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능성 없어 보이는 나에게 오늘도 정기기후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만복함이 되길 소망한다. '주여! 이 죄인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진걸(전북1부)

복음 듣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함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음의 풍요를 누릴 때도 있지만 간혹 세상적으로 시련을 받으며 연약해 있을 때가 있다. 그런데 '깊이 담겨 있는 내 말을 귀 담아 듣고 실천하라'는 오늘의 말씀이 마음의 경종을 울렸다. '참조주 하나님!심을 깨달으며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진리를 말씀으로 회개하며 순종하여 함을 또 다시 깨닫게 해 주시는 주님, 온전한 복음으로 나 자신에게 충성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안에 살 때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을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은경(집사, 5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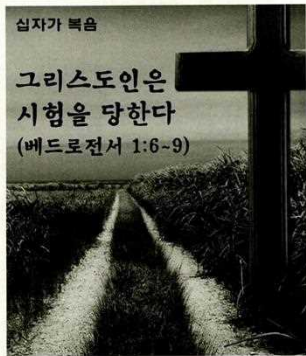
나의 영혼을 다시금 약해워 준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에 물들어 있는 이 세대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주제로 정기기후련에서 선포된 말씀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영혼을 다시금 일깨워 준 복 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나는 삶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며 지낸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였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삶 속의 이야기와 너무도 같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듣지 못하고 걱정하는 마음, 두 세계에 살면서 세상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어리석은 나. 성령 충만치 못하여 주님의 말씀을 헤아려 듣지 못하는 나를 다시금 회개하며 반성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삶이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오니 주님 복음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들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더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듣고 헤아려 들을 줄 알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소나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장업선(권사, 14교구)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한다
(베드로전서 1:6-9)

나눔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두나케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3~4).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또한 '많으신 긍휼대로'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을 주신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보다 더 쉽고, 더 놀라운 소망이 있는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고전 1:21; 마 11:27; 요 14:6). 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한다

"그르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벧전 1:6).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은 가끔씩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종류가 다양하며 항상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 앞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면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기쁨의 제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마 16:18)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결정적인 실수(마 26:75)를 범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또 다시 사명을 주셨다(요 21:15~17). 이제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아시아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다. 그가 전하려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

반드시 실패한다. 내가 하려는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당해야 한다. 고난의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롬 5:3,6). 이것을 깨달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권고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 한 때 자신의 형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방해하며 불평했던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고난뿐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 앞에 괴로워하며, 결국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고난을 당하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요 16:33; 히 4:15~16, 13:8).

● 고난은 믿음과 관계를 맺는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벧전 1:7).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눅 18:31~34).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 앞에 뿔뿔이 흩어졌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더 이상 인간의 작품, 공로로 여길 수 없었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구속자로 만드셨던 것이다. 이 구속의 은혜를 믿어 예수로만 충분했던 스테반의 최후는 고통스러웠지만, 산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행 7:59~60).

●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8~9).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고전 1:24, 15:57). 이것은 믿음의 승리다(요일 5:4~5).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히 13:5~6). 지금 고난 중에 있는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당할 때 기쁨으로 가득하며,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직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아멘.

메시아의 죽음 97

말씀이 이루어짐:
제자들이 떠나다(마가복음)

겔레마네 동산으로 자신을 잡으려 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막 14:49)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고되고 힘든 길을 걸으신 것이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능력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 온 무리를 아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소녀를 살리셨고(막 5:41~43),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막 4:39). 또한 두려운 귀신이 들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를 예수님은 간단하게 고쳐주셨다(막 5:13,15). 예수님은 진실로 능력의 주님이셨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겔레마네 동산에서 무기력하게 무리에 둘러싸여 계셨는가? 그 답은 이것이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미리 알려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

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막 14:27, cf. 마 26:31). 이것은 스가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다(삼 13:7). 그러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하던 베드로를 따라 모든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막 14:18~20, 29~31).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막 14:50).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들이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곤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막 1:20, cf. 마 1:18).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결심과 각오, 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말씀을 붙들면 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의 걸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로 나아가셨다. 우리의 걸음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생각되는 말씀만 골라서 이용하려는 악한 모습을 회개하자. 현실에 맞게끔 말씀을 적당히 바꾸었던 교묘한 행동들을 돌이키자. 단순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말씀을 붙들자.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멘.

11월 18일 주수감사 찬양축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온 성도가 악기를 가지고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주수감사 찬양축제가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에 열립니다.
이 날을 준비하는 많은 성도들 중의 한 사람을 먼저 만나 보았요.

Q.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올해 8월부터 오보에를 배우고 있는 20교구 이치명 집사예요.

Q. 연주하시는 악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A. '오보에'는 리드에 바람을 세게 불어 넣어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온지법은 일반 리코더랑 비슷하고요.

Q. 특별히 이 악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A. 이번에 악기를 처음 배워 보는 건데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오보에 연주를 들었는데 가슴을 울리는 소리에 반해서 고민하다가 증언음악아카데미를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Q. 악기로 찬양하며 받는 은혜가 있다면?

A. 악기를 배우면서 악보 보는 법을 직접 연습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도 악보를 보며 찬양을 하면 곡이 담고 있는 느낌을 안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주수감사 찬양축제 때 연주할 곡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A. 개인적으로 〈하늘의 찬송〉이라는 곡이 참 좋아

요.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너무 어려운 곡이라고 느꼈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 좀 더라고요. 멜로디가 참 아름다워요.

Q. 찬양축제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A. 주수감사절은 거두어들이는 절기이자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감사를 드리는 날이니만큼 인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연수도 많이 해야 마겠지만 기도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면 내 안의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참 좋거든요.

Q. 찬양축제를 준비하며 감사한 것이 있다면?

A. 금요찬양집회가 끝나고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개인 지도만 받다가 여러 명이 모여서 합주를 하다 보니 여러 악기가 한 음을 낸다는 게 참 신기하고 좋았어요. 악기를 처음 다뤄서 많이 서툰데도 이렇게 함께 연습해서 오케스트라로 만나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신다 정말 감사해요.

Q.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많은데 누구든 꾸준히 연습하면 악기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취재·한편이 기자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4일(월) ~ 11월 21일(월)	13교구 2팀	조윤성
11월 14일(월) ~ 11월 22일(화)	16교구 3팀	김세향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8일(화) ~ 11월 16일(수)	21교구 3팀	임채봉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2일(수) ~ 11월 9일(수)	8교구 2팀	김광선

교역자 동정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안치원 목사

안치원 목사님(24교구 및 예배위원회 지도)이 대전와동교회(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59-1) 담임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안목사님은 만 8년 8개월(2003.4.1~2011.11.6) 동안 사역하면서 교육부서에서부터 교구, 예배, 찬양 등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충성되게 섬기셨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감사하고 좋았다"고 고백하신 안목사님은, 대전에 가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11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26일(토)에는 위임예배가 있습니다. 대전와동교회에서의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 얼마 전에 개척하신 장영기 목사님(십자가위에세운교회), 양태선 목사님

(하늘소리교회)이 계십니다. 현재 이 교회들이 복음 안에 서도록 매일 재정과 인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 사임하신 하종철 목사님이 성민교회(인천광역시 서구 신흥동 331-10)를 개척하셨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있었던 설립예배에는 본 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교역자

이관석 목사
(1973. 3. 2)
김진 사모 외
2남 1녀이창성 목사
(1975. 10. 4)
박희정 사모 외
1남 1녀김성민 목사
(1976. 2. 20)
박미선 사모 외
1남 1녀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931	박예림	양육반	12	박정표
2932	김기영	양육반	18	최홍섭
2933	성감진	초등2부	6	백수현
2934	성성진	중등부	6	백수현
2935	안혜정	양육반	17	이원자
2936	전현진	양육반	2	장동주
2937	배상민	중등부	20	이정진
2938	김주미	중등부	10	박민지
2939	임하림	중등부	15	김나연
2940	장현진	중등부	23	장수은
2941	이지수	대학부	22	최충란
2942	박순기	양육반	11	최경일
2943	김유진	양육반	11	박병철
2944	김소진		10	오영선
2945	조순선	양육반	1	최계열
2946	손민지	대학부	9	구은자

Copyright © 2011 충청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